Press Release

보도자료

제공일 : 2008. 8. 21.
제공자 :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
과 장 : 심 재 규
사무관 : 전 용 투
전 화 : 031)463-1589
쪽 수 : 2P
별첨자료 : 없음

이 자료는 2008년 8월 22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추석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실시

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, 8.25부터 9.13까지 제수 및 선물용품 집중단속-

□ **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원장 최도일)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선물 및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원산지 둔갑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, 8.25부터 추석 전(9.13)까지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음식점 원산지 단속과 병행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.**

○ 단 속 반 : 단속원 1,100명, 명예감시원 25천여명 합동단속
- 단속원 1,100명중 770명을 추석단속에 투입, 잔여 330명은 음식점단속

○ 대상 : 백화점, 대형유통업체, 선물·제수용품 제조업체, 인터넷쇼핑몰 등

○ 제수용품 : 쌀, 사과, 밤, 곶감, 대추, 고사리, 돼지고기, 쇠고기 등

○ 선물용품 : 갈비세트, 한과세트, 다류세트, 건강선물세트, 지역특산물 등

□ **이번 단속은 수입농산물 유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중소도시 이상 소비지 백화점, 대형업체는 물론 재래시장까지 공정·투명하게 실시하되, 단속 전에 생산자·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동원하여 원산지표시 캠페인 실시로 부정유통방지 홍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.**

□ 한편,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도 시민의 적극적 신고와 관심이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시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 「1588-8112번」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○ 신고포상금 지급 :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